

■ 심의 총평

- 사업 명 : 2022년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방 하반기 입주작가 선정 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22일(수) 16시 /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회의실
- 심의위원 : 나푸름, 노희준, 윤고은(가나다 순)

'방'이라는 말만큼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다. 소설가에게 '방'은 일종의 감옥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다. 타인으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고립되어야만 세계와의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아이러니. 어쩌면 '방'은 펜보다도, 종이보다도 더 본질적인 글쓰기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작가에게는 사치이거나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글쓰기의 요건으로 '자기만의 방'과 '돈'을 꼽았겠는가.

심사도 쉽지 않았다. 작품을 평가하는 게 차라리 쉽지 않았을까. 지원서를 세 번 네 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보니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채점한 결과가 대체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객관적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으나 '혹시' 하는 마음에 꽤 긴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집중하면 '기회'의 편중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젊은 작가, 시작하는 작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니만큼 지원자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느끼기도 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았으나 원래의 채점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현재의 성과, 연령, 지역 등등에 있어서 편향 없이 골고루 안배된 심사였다고 생각한다.

22명의 지원자 중 4명을 선정하였다. 예비도 꼼꼼하게 검토했다. 지원서가 다소 건조한 감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자신에게 '방'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선정된 분들께서는 꼭 좋은 작품 쓰시기를. 몹시 부럽다는 말로 심사 총평을 마칠까 한다.

심사위원 일동